

가창 시 발음으로 인한 소리 연구

이재연,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hflehl1318@hanmail.net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f sound according to singing pronunciation

Jae-Yeon Lee, Tae-Seon Cho*
Chu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Music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창 시 임의적이고 뚜렷한 제시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발음으로 소리 내기를 보다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가창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발음을 체계적으로 가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에서의 가창의 발전은 이제 세계화 속에서 많은 다양한 월드 뮤직 장르와의 연계로 인해 소리와 발음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대중 음악이 진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발음을 정확히 분석하고 소리 내어 읽어 가는데서 부터 음악의 기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요구되고 있다. 음의 길이, 쉼표, 가창 특유의 연주에서 오는 여러 의성어를 조합하여 가창부분에서 편리성과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추후 어떠한 언어에 가창에도 편리하게 가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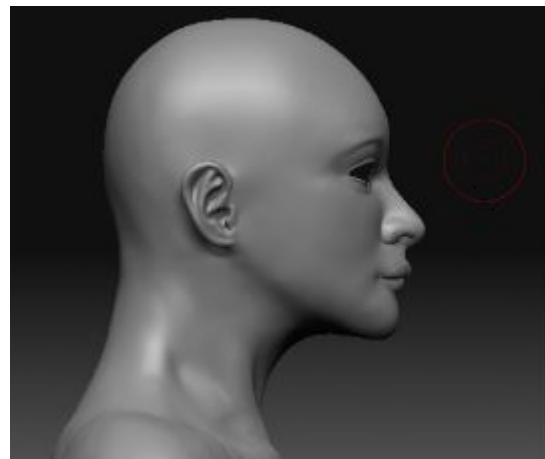
찾는다.

가창 시에 있어 발음은 많은 부분 영향을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소리에 영향을 준다. [1]가창을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대중들에게 보다 깔끔하고 듣기 편한 소리로 가창을 하려 노력한다. 조금 더 대중들이 편하게 가창을 감상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주자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리가 깔끔하게 전달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발음(diction)이다.[2] 각 발음 자음, 모음에서 어디에 위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지 어디서 발생하여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는지 조사하여 어디 위치로 변형되어 발음을 하였을 때 가장 듣기 편한 소리가 전달되는지 조사하여 연구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연주자의 발음전달과 듣기편한 소리를 전달하는 능력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본론

흔히 가창을 연습 시에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 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소리를 명확히 판단 고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연습 시 소리가 나오는 일반적인 발음의 위치를 명확히 숙지 후 연습하고 수정 후 깔끔한 소리를 내기위하여 소리의 중심점을



[그림 1] 사람의 보편적인 두상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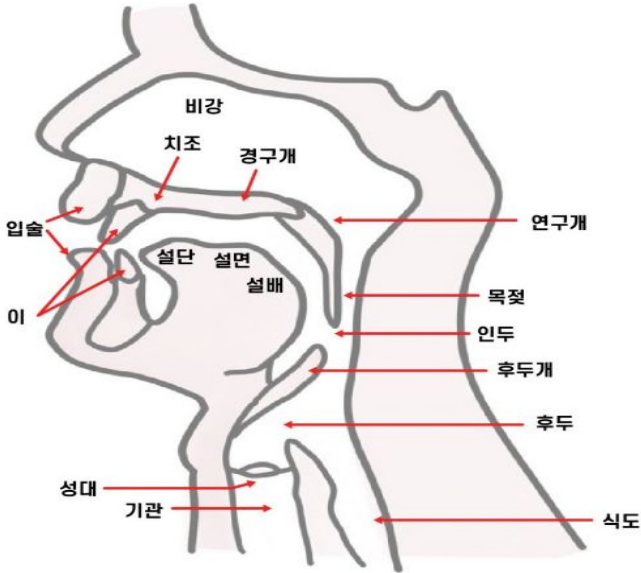
http://www.gamejob.co.kr/community/gallery/view?Gallery_Stat=11&Idx=65037&mode=V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편적이 일반인들의 두상 이다 가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부분은 사람의 코, 입 부분이다 발음 (diction)은 사람의 혀를 이용해 자음과, 모음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것을 발음(diction)이라 칭한다.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파악하고 음성을 전달할시 그 음성이

어디 위치에서 나와야 깔끔하며 대중들의 귀에 편하게 들리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연습해야한다.

2.1 발음(diction)이 앞으로 부터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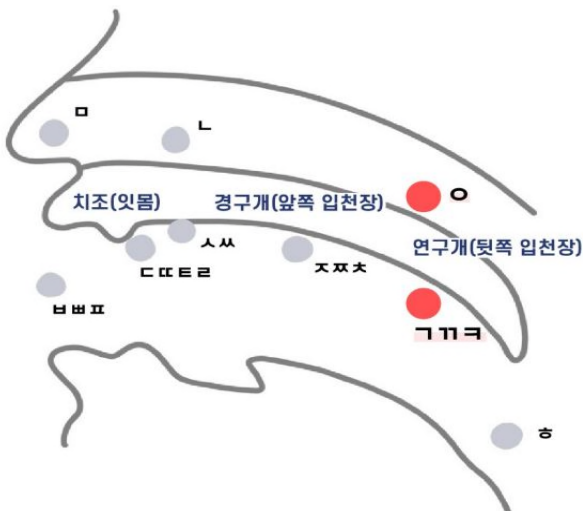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적인 구강 구조

출처 <https://blog.naver.com/annateach/221773099889>

[그림 2]에서처럼 사람의 두상을 보았을 때 성대의 떨림을 이용하여 입술을 통해 음성이 전달된다.

음성을 전달할시 설단, 설면, 설베를 활용하여 자음과 모음을 이용하여 문자를 만들어 전달하는데 이를 통하여 가사를 전달하고 가창을 하는 것이다.[3]

2.2 자음, 모음이 발생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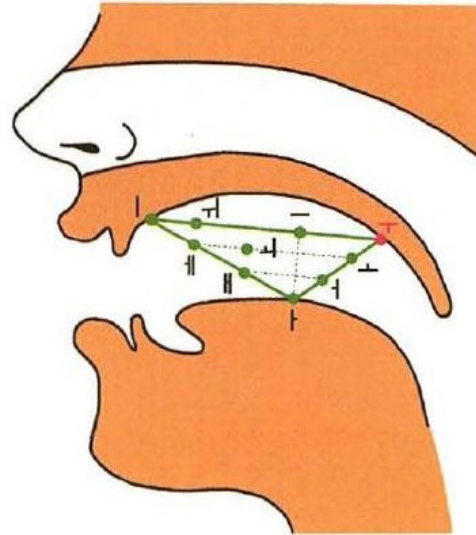


[그림 3] 자음이 발생하는 위치

출처 <https://blog.naver.com/annateach/221773099889>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발음하는 자음의 위치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소리가 전달된다는 걸 볼 수 있다.

자음 ㅂ, ㅃ, ㅍ 은 앞쪽에 위치하여 입술 가운데에서 위치하는 반면 ㅎ 자음은 뒤쪽 설베 끝부분에서 소리가 발생한다.



[그림 4] 모음이 발생하는 위치

출처 <https://blog.naver.com/hoonys/220555135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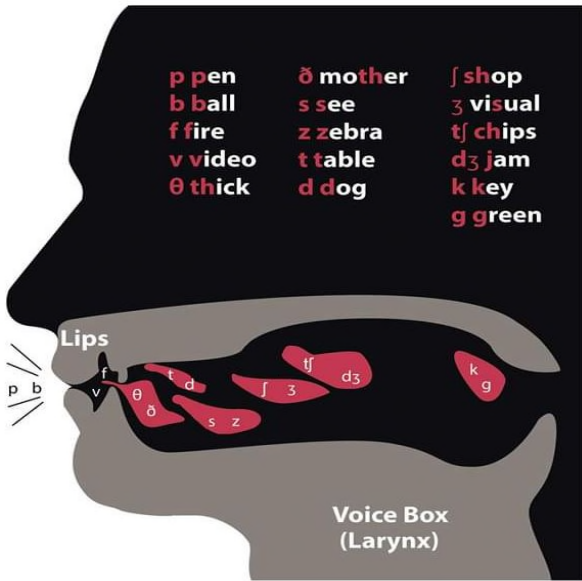
모음은 자음과는 다르게 소리들이 연구개에서 치조가 위치 한곳 설면 위쪽에서 소리가 발생한다.

이는 자음과는 반대로 소리가 퍼지지 않고 일정한 위치에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자음과 모음을 함께 발음하여 소리를 전달 할 때에는 두 단어가 만나는 중간지점에서 소리가 발생한다.

2.3 한글과, 영어 발음차이

한글의 발음과 영어의 발음은 차이가 난다. 한글은 설단을 이용해 앞니 쪽으로 소리가 퍼지도록 ㄹ 발음을 하지만 영어는 설단을 경구개까지 끌어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자음도 차이가 난다.

예로 맥도날드(한글) , 맥도널드(영어)를 발음할시 한글로 표현할시 맥도날드라고 입모양이 옆으로 퍼지며 ‘날’ 이라고 발음 한다 반면 영어로 표현할시 맥도널드라고 발음하며 ‘널’ 발음이 위아래로 퍼지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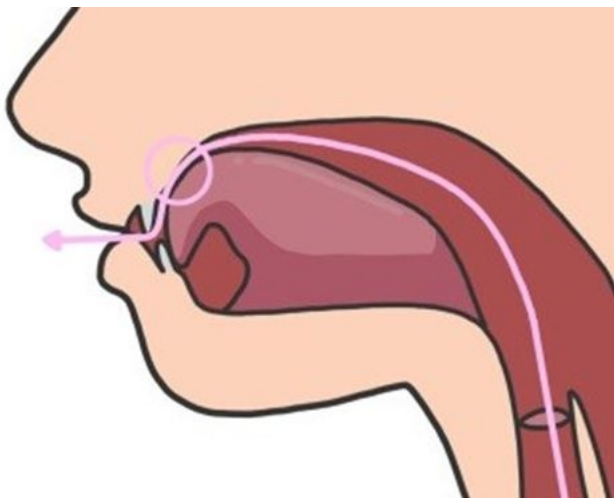
[그림 5] 영어 발음 발생하는 위치
출처 <https://blog.naver.com/bruceltk/221444109675>

자음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ㄱ에서 ㅎ까지 그리고 ㅇ 즉 받침으로 쓰일 때 자음이라고 말 한다.

이러한 자음 소리는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에서만 해당될 뿐 영어 또는 다른 언어에서는 차이가 난다.

영어에서 자음의 핵심은 ‘접촉’이 일어나는 것 인데 기본적으로 자음은 혀, 치아, 입술이 특정하게 붙으려고 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인데 한글 즉 우리말에 있는 소리로 대체하여 영어 발음을 전달하다 보니 애매한 소리가 전달되어 내용전달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2.4 영어발음 시 혀의 위치



[그림 6] 영어발음 할 때 혀의 위치와 변형
출처 <https://blog.naver.com/speakingfit/220919773468>

영어발음 시 한글과 다르게 영어는 혀의 위치가 [그림 2] 에

보이는 것 과 같이 치조, 경구개를 활용하여 소리를 전달 하게 되는데 이는 설면, 설배를 이용하는 한글과 달리 영어는 설단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부분이 구강의 앞으로 대부분 붙어 발음하게 된다.

3. 결론

가창은 현대 대중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따라 부르고 있는 시대이며 또 대중들의 감정에 혹은 어떠한 상황에 분위기에 맞게 자신들의 음악을 표현 한다.

하루에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 곡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창을 하는 사람으로 대중들에게 편안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시된 본론의 발음으로 인한 소리변화는 어떤 특이한 경우에서도 규칙을 잘 지켜 발음 한다면 대중음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표현한 한글과 영어 이외 다른 언어들 통해 여러 발음을 표현 할 수 있는가하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의 주요 한글과 영어로 발음 하는 것이 대중적이다. 한글과 영어를 기준으로 상당히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초 단계의 음악 학습자에게는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b0d18881c5140d78ce6a58a29658316> 10월 07일 2020년 검색.

[2] 네이버 어학사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927a8208756943f882067ea55eb284a3>, 10월 09일 2020년 검색.

[3]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EC%9E%90%EC%9D%8C&query=%EC%9E%90%EC%9D%8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10월 08일 2020년 검색.